

애굽과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복음으로 여는 출애굽기-

출애굽기 15:1-13, 사도행전 7:20-34

정윤돈 목사님

서론 : 출애굽기 이해를 위한 기초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1) 출애굽기는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이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다섯 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한다. 창세기는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방주, 바벨탑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인물을 통해서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한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된다. 좋은 땅에서 잘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서게 된다. 당시 애굽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만약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의 편을 들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셉 당시의 바로도 아마 애굽의 정통 혈통이 아니라 셈족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은 셈족이었던 요셉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 아니냐 하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다. 그런데 그 왕족의 가문이 바뀌니까 어려움이 또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갈수록 강성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생활을 하면서 벽돌을 굽고 강제 노역을 했는데,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은금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 속에서도 생존했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400년 만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받고 성막을 짓게 되는 것까지가 출애굽이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피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다. 우상숭배의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바꾸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제도와 성막을 주신 것이다. 이게 레위기의 내용이다. 민수기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 때 있었던 이야기이며,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새로 일어난 젊은 세대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시켜 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빠르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전달하는 내용이 신명기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어가는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홍해가 시작된다. 레위기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막힌다. 이것을 뚫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나는 신학교 때 레위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었다. 신학교 교수님이 언약적 관점에서 쉽게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잘 안 되는 분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길 바란다. 만남의 축복 있기를 축원한다.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2) 출애굽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세의 출생, 하나님의 부르심,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것,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야에서 50일 째 되는 날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3)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피라미드같은 수천 년 된 역사 유물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볼 수 있다. 피라미드는 4천 년 정도 된 건축물이다. 방주를 만들고 바벨탑을 만드는 기술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도 전수가 된 것이다. 지금 짓는다고 해도 피라미드 짓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컴퓨터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건축물들을 만들었겠는가.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이 처음부터 지혜로웠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도 처음부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술이 개발된 결과 가장 큰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강력한 지진이 왔는데, 관광객들의 카메라가 수십 개가 깨질 정도였다. 그런데도 피라미드는 끄덕도 없었다. 그냥 네모반듯하게만 쌓은 게 아니라, 열기설기 위이도록 돌을 쌓았다. 그래서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새가 없게 만들었다. 그때 있었던 인물들이 요셉이다. 그런 지식을 배운 인물이 모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4천 년이 지나서 내가 성지순례를 위해서 가 봤더니, 자동차에 백미러가 없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낙타 타고 가듯이 앞만 보고 간다는 것이다. 4천 년 전에 살던 수준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 성경이 말씀하는 홍

수 사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천국 보좌에 앉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러한 기적과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의 미라도 발견되었다. 이 미라가 이집트 박물관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요셉이 바라보았던 건축물들이 아직도 있다. 직접 한 번 가 보라. 광야도 가 보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땅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다. 지금 램넌트들은 학교에서 하나님 없는 지식을 배우고 있다. 학교에서 성경이 신화라고 가르친다. 그런 지식을 12년 동안 배우고 있으니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침사량 램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세상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 성공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도 홍해의 기적을 믿지 않고 있다. 성경의 내용을 과학과 이성의 수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조수간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바다가 벽을 이루었다고 말씀했다. 그것이 크리스천 잠수부들의 고고학적 발견 때문에 비로소 사실이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홍해에 애굽 군대의 마차와 바퀴가 그대로 있다.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남겨두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주신 작은 근거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

1.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1)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굽생활은 불신앙과 죄와 사탄이라는 근본 문제에 빠진 것을 말한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 상태였다.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체를 회복하도록,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셨던 것이다. 어려울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않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이 뺏뺏한 백성이라고 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창세기 3장이 무엇인가? 남자들이 특히 그런데, 남자들은 전부 자기가 왕 되고 싶어한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할 뿐이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 전부 나 중심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끊임없이 생각한다. 그들의 삶은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뿌리내려 있었다.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다. 물질중심, 쾌락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소망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피라미드였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그게 바벨탑 아닌가. 우리도 조금 말씀을 떠나면 이 체질로 돌아가게 된다.

② 하나님은 광야생활을 통해서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 성막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 신앙생활까지도 구원해주셨다. 하나님은 근본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제도와 제사를 주신 것이다. 이 땅에는 끊임없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수첩해야 하는 것이다. 성막 대신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십자가 모양으로 성막을 둘러진 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도록, 영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을 다 주신 것이다.

(2)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라, 민족,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이다. 이것을 믿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질문하는 것이다. 도

저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천 년만 기도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천 년의 응답이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플랜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32:9에, 목이 뻗뻗한 백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드셨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40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몰랐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누릴 수 있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속에서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어갔지만, 먹지 못해서 말라죽어간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그 수용소 벽에 그들이 남긴 글이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는 조금만 뒤편이 안 되면 불만 불평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쓴다.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패거리를 만든다. 여러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불신앙, 불순종,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만드셨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만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기적적인 은혜다. 그 은혜를 받아서, 광야에서 맴도는 인생으로 삶을 마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쫓고 쫓아오는 땅을 정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강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2.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

(1)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 언약이다. 그 상징이 희생제사다. 제사제도다. 그리고 유월절이다.

① 만약 바로가 모세를 만난 후에 출애굽기 3:18의 희생 제사를 허락했다면 10가지 재앙도 없었을 것이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장 강한 병거 600대를 보냈는데 그게 다 수장되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실패했다니 망하지 않았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하면 망한다. 우리가 북의 근원인 줄 믿는다. 만약 바로왕이 피 언약을 알고, 언약의 백성이었던 민족을 도와주었다면, 그 나라는 왕성해졌을 것이다. 요셉의 말을 들을 때, 다니엘의 말을 들을 때, 그 나라가 강성해지지 않았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은혜를 입게 된다.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북의 근원으로 부르셨지 않은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북의 근원이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다.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라.

② 이스라엘은 유월절 언약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보혈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물러갈 것이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 피의 증거가 있을 때 모든 재앙과 저주는 물러가게 될 것이다. 피를 발라라.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주변의 친척과 지인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이 피를 발랐을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소문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문이 지역에 나타나야 한다. 안 되면 진짜 피를 가지고 가서 바르겠다. (웃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시기를 바란다. 램뉘트들이 이게 안 되면 이마에 십자가 문신이라도 새겨드리겠다. (웃음) 참사랑 문신을 새겨드리겠다. (웃음)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문신은 안 시키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시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신다. 그러면 광야 훈련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드러나게 하셨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라.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 있으면 그냥 건너면 되지 않나. 그런데 안 갈라져 있으니까 백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울면서, 땅을 치면서 불신앙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말리셔서 그들이 건너게 하셨다. 왜 미리 가르시지 않았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건넌 후에 모세는 너무 기뻐서 여호와의 찬양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랬던 모세도, 나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트린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판을 그 자리에서 깨 버렸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잘 안 드린다고 화가 나서 이 물건을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나? 영적 문제 아닌가? 모세가 그랬던 것이다. 원래 그랬다. 좀 분이 나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랬었지 않나. 하나

님은 모세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하셔서 사용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생활을 하면 많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창피해하지 말고 드러내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은가.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은 또 원망한다. 물이 없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지금도 그 반석이 남아 있다. 물이 흐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만약 호수가 많고 강이 많으면 불신앙을 했겠는가. 물이 없으니까 다 드러나는 것이다. 원망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조금 응답을 주면 좋아하고, 조금 뒤편이 안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신다. 조금 있으니까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한니까, 또 배 추라기를 넘치게 주셨다. 지도자가 잠시만 없으면 탄 짓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이였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내면서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렸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게 아론 아닌가. 모세를 보고 아론이 멋쩍으니까 뭐라고 변명하는가? 그냥 금을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고 했다. 그게 사실이면 엄청난 기적이다. (웃음) 민망하니까 변명을 한다는 것이 그런 수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후손까지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갱신되고 개혁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24시 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나면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 앞에서 떨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믿음의 포럼을 했을 것이다. 불신앙의 포럼을 하지 말고 믿음의 포럼을 하시기 바란다. 10가지 기적을 이미 봤지 않나. 그러니까 다 떨고 있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포럼했을 것이다.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그것을 감사로 고백했을 것이다. 끝까지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광야같은 생활, 노예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음대로 안 되고, 뒤편이 부족하고, 어려움에 부딪혀 있더라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도 누렸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것이다. 만사가 마음에 안 들 것이다. 패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자기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복음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광야생활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는데, 광야길을 버스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쉬었다 가자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렸더니 차가 떠나버렸다. 그래서 차를 따라 잡으려고 우리가 광야에서 1km를 걸어야 했다. 너무 덥고 힘들었다. 버스에 타는 다 불평했다. 그런데 가이드분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1km 걸었는데도 이렇게 불평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 62가지를 하고 있다. 아직 500개 넘게 남았다. (웃음)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결론 : 다섯 가지 확신

결론적으로, 다섯 가지 확신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훈련은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게 하는 훈련이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하겠다. 근본 문제,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믿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로,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령인도와 기도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확신이 있어야 한다. 체험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란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를 언약의 현장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뛰어난 믿음의 가문과 백성이 되실 줄 믿는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를 애굽같은 세상, 광야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깨달음을 주시며, 언약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뛰어난 믿음의 제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